

최소병변신증후군에서 면역형광검사 양성인 예의 검토

고려의대 내과

조원용 · 정동국 · 김형규

병 리 과

원 남 회

최소병변신증은 원발성의 신증후군을 일으키는 원인질 환중 간단한 것으로서 병리학적 검사상 정상소견을 보이며, 면역형광검사 상에도 음성으로 나타난다고 하나, 면역형광검사 양성인 임상적 의의에 대해서 논란이 많다. 이에 연구자들은 1983년 1월에서 1986년 12월까지 고려대학교 혜화병원 내과에 입원하여 신조직검사상 최소병변신증으로 진단받았던 27예에 대하여 면역형광검사상 양성을 보인 13예와 음성인 14예를 조직소견, 임상상 및 치료효과등을 비교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혈청알부민치는 양성군에서 $1.57 \pm 0.52 \text{ gm/dl}$ 이고, 음성군에서 $1.40 \pm 0.34 \text{ gm/dl}$ 이었으며, 단백뇨는 양성군에서 $9.50 \pm 4.45 \text{ gm/day}$, 음성군에서 $11.44 \pm 8.67 \text{ gm/day}$ 로 양군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2) 고혈압의 경우 양성군에서 13예중 3예, 음성군에서 14예중 5예 있었으며 현미경적 혈뇨는 양성군에서 13예중 4예, 음성군에서 14예중 1예 있었고, 질소혈은 음성군에서만 14예중 4예 있었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3) 면역형광검사 양성인 예에서 13예 전부에서 IgM이 양성으로 나타났으며, 2예에서는 IgG가 양성으로 나타났으며, 13예 전부에서 mesangium에서 나타났다.

4) 치료 및 경과 : 양성군은 프레드니솔론으로 평균 7.54주만에 관해를 보였으며, 이중 6예에서 완전관해를 보였고(46%), 음성군에서는 누락된 환자 1예를 제외한 13예에서 프레드니솔론을 평균 7.23주 사용하여 8예에서 완전관해를 보였으나(61.5%), 양군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말기 신부전증 환자에서 B형 간염 예방접종 후의 항체 반응

고신의대 내과

이성숙 · 박시영 · 육동민 · 김영호

최창필 · 박진석 · 박병채 · 이시래

말기 신부전증 환자들은 빈혈의 교정 목적으로 수혈을 자주 받고, 또 장기간의 혈액투석으로 인하여 B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의 위험도가 높으므로 B형 간염 예방접종은 중요하지만 건강인에 비해 예방접종에 대한 항체 반응이 낮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에 저자들은 1983년 2월부터 1987년 3월까지 고신의대 부속병원에서 HD를 받은 환자 71명과 CAPD를 받은 환자 총 165명을 대상으로 B형 간염 바이러스 표식자의 분포 상태를 조사하고 HD군에서는 평균 19.4개월 뒤에 반복 검사된 환자에서의 B형 간염 바이러스 표식자의 변화와 예방접종을 실시한 건강 대조군과 말기 신부전증 환자에서 anti-HBs 양성 전환율을 비교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성적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투석전 말기 신부전증 환자 165명 가운데 15명(9.1%)이 HBsAg 양성이고 54명(32.7%)이 anti-HBs 양성이었다. 추적기간 중 B형 간염 바이러스 표식자가 반복 검사된 HD 환자 28명 CAPD환자 26명에서의 표식자의 변화는 HBsAg이 음성이 양성으로, 그리고 양성인 음성으로 전환된 예는 한 예도 없었고 anti-HBs 음성에서 양성으로 전환된 예는 HD환자(n=15) 2예(13.3%) CAPD환자(n=18) 3예(16.7%)에서 있었다.

HBsAg와 anti-HBs 음성인 건강 대조군 21명 CAPD환자 10명을 대상으로 녹십자 Hepavax-B 1ml(20 μg)를 1개월 간격으로 2회 그리고 5개월 후에 근육주사하고 마지막 접종 후 1개월째에 검사하여 anti-HBs의 양성전환율을 관찰하였던 바 건강 대조군에서는 13예(62.0%) HD환자 8예(38.1%) CAPD환자 4예(40.0%)에서 양성으로 되었고 3회 접종 후에도 음성이었던 HD환자 5명 CAPD환자 2명에서 다시 2ml(40 μg)을 1개월 간격으로 2번 주사하였더니 HD환자 2예 CAPD환자 1예에서 각각 양성으로 전환되었다.